

알렉산드르 헤르젠 연구*

-러시아 민족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 지 용 **

1. 서론

역사 속의 모든 인물들은 그 나름의 역사적 좌표를 갖고 있다. 역사적 상황이 그 인물의 역사적 의미를 결정짓겠지만, 동시에 그 인물이 또한 역사적 상황에 영향을 주면서 그가 위치했던 역사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헤르젠(A. I. Herzen, 1812-1870)은, 그의 아버지가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루쯔끼 지역의 대영지 보유자였던, 귀족 가문 출신이다.¹⁾ 제카브리스트 봉기 이후의 '강요된 침묵의 시기'를 거친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묘한 지적 자유의 시기와 눈에 뜨일 정도로 계몽된 관료집단이 성장했을 즈음에, 그는 살롱 사교계의 지적 논쟁에서 서구주의자로서 자신의 명성을 확고히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러시아사에서 그의 이름은 오히려 60년대에 시작되어 70년대에 러시아를 휩쓸고 그 후의 러시아 혁명사에 결정적인 흔적을 남겼던 인민주의 혹은 러시아 사회주의의 '아버지'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러시아의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그의 생애 속에서 고뇌에 찬 많은 지적 방황의 흔적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

* 이 논문은 199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사학과 교수

1) Herzen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A. Herzen, *My Past & Thought: the Memoirs of Alexander Herzen*, vol. 1, (trans., by Constance Garnett, with an Introduction by Isaiah Berlin, Alfred. A. Knopf, New York, 1968), pp. 3-19를 참조하라. Herzen에 관한 국내의 논문은 이인호, "19세기 러시아 민족주의 비판 -헤르젠과 솔로비요프의 견해를 통하여-", 『러시아 지성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0)이 있다.

정한 단계가 헤르젠의 참 모습은 아니다. 헤르젠 자신이 마지막 시기까지 거듭 지적 방황을 계속하였고, 따라서 그의 철학 체계 자체가 약간은 난삽하고, 과도기적인 방황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확한 사상 체계의 구도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희미한 윤곽--아마도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자들이 그린 밑그림--을 따라서 대체적으로 그려진 선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다. 어쨌거나 그러한 지적 방황, 혼란, 성숙,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영향은 무엇이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잃지 않고 견지했던 그의 철학적 입장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민주의와 관련하여 언제나 문제가 되는 민족주의에 대한 헤르젠의 입장은 또한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러시아 지성사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슬라브주의'의 등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현대사와 연관하여서도 러시아사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의 길'과 연관된 민족주의적 경향이 러시아의 진로 결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란 무엇이고 러시아적 상황 속에서 생성되었던 러시아의 민족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로 나타났었던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19세기의 러시아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러시아 현대사까지도 연관하여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우선 여기서는 서구주의자이면서 인민주의자였던 헤르젠을 연구 분석하면서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의 한 부분을 시작하고자 한다.

2. 서구주의자 헤르젠

뵘프르 대제의 개혁의 결과로 서구식 교육을 받고 서구의 문화와 접할 수 있었던 많은 러시아 지식인들이 19세기초부터 기존의 기구들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마음속에서 진보를 그리게 되었다. 이러한 불만이 최초로 표출되었던 1825년 제카브리스트들의 봉기에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인 동정을 제공하였을 뿐이었고,²⁾ 짜르체제는 침묵을 강요하였다. 그 '강

2) "물론, 나는 (그 사건과) 아무 것도 연루되지 않았고, 그러하다는 것은 정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비록 그의 실제 미덕에 대해 정당히 경의를 바치지만, 지

요된 침묵' 속에서도 '계몽된 관료집단'은 점차 성장하고 있었고 살롱 사교계에서는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토의되고 있었다. 이 속에서 개혁을 향한 불가피한 과정은 시작되고 있었다.³⁾ 1840년대는 안넨코프(P. V. Annenkov)의 자서전의 제목과 그 내용에 보듯 이미 '기묘한' 지적 자유가 일반화되어 있었다.⁴⁾

1834년 7월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체포된 후 1836년 유배지인 미야뜨카에서 러시아의 입법에 관해 틴툼이 작성했던 글 속에서 헤르젠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이미 러시아 사회를 계몽화하고 교육하는 과업을 시작했고 그것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 '그는 개혁주의자의 온전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벤추리(F. Venturi)는 말한다.⁵⁾ 유배지에서 돌아온 뒤인 1838년에도 블라디미르에서 그는 독일의 관념 철학 특히 헤겔 철학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모스크바대학 시절부터 생 시몽의 글을 읽었고 1833년 오가료프(N. L. Ogarev)와 함께 생 시몽의 철학에 관해 글을 쓰고 있었기는 했지만, '혁명의 대수학으로서의 헤겔철학'을 받아들이고 명확히 헤겔좌파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마도 40년대부터인 것으로 보인다.⁶⁾

1843년 가을 안넨코프가 헤르젠 등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헤르젠은 서

금의 황제에 대해 당연히 나는 썩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결코 만관을 설교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나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나는 우리의 새 황제가 관대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기대한다." Pushkin to A. A. Delvig, 2. 1826, L. Schapiro, *Rationalism and Nationalism in Russian Nineteenth-Century Political Thought*,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1967), pp. 53-4에서 재인용.

3) N. V. Riasanovsky, *A Parting of Ways: Government and the Educated Public in Russia 1801-1855*,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6), pp. 248-97을 참조하라.

4) P. V. Annenkov, *The Extraordinary Decade: Literary Memoirs*, (ed. by A. P. Mardel, trans. by Irwin R. Titunik,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8), pp. 75-113.

5) F. Venturi, *Roots of Revolutions*, (trans. by Francis Haske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83), pp. 11-2.

6) A. Walicki, *History of Russian Thought : from the Enlightenment to Marxism*, (trans. by Hilda Andrews-Rusiecka, Clarendon Press, Oxford, 1980), pp. 173-4.

구파의 거두로 살롱 사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⁷⁾ 이 무렵 모스크바에 있던 마담 엘라긴의 집에서 헤르젠은 ‘그의 영원한 적수’ 호먀코프(A. S. Khomyakov)를 만났는데 안넨코프의 눈에는 두 사람 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급진주의자로 보였다. 두 사람 사이의 격렬한 논쟁의 첫 부분은 헤겔 철학에 대한 입장의 차이였다. 호먀코프는 헤겔적인 철학 체계 자체를 거부하면서 “어떤 쓸만한 철학도 이성만에 의한 소산들과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유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부분은 호먀코프의 비잔틴 문화의 명예 회복 시도에 관한 것이었다.⁸⁾ 비록 60년대의 헤르젠이 “칸트식의 자연주의를 주의주의적(voluntaristic)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해지긴 하지만,⁹⁾ 호먀코프와의 격렬한 논쟁에서도 보이듯이 1847년 1월에 그가 러시아를 떠날 때까지 그는 스스로를 헤겔학파로 간주하고 있었다.¹⁰⁾

후일 헤르젠은 “모스크바의 슬라브주의와 니콜라이의 페제르부르그 슬라브주의의 만남은 전자에게는 큰 불운이었다. 니콜라이는 혁명적 이념으로부터 민족주의와 정교로 간단하게 넘어 갔다. 슬라브주의는 말만 같을 뿐 그와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¹¹⁾라고 슬라브주의와 관제 민족주의를 구분 짓는다. 그러나 그는 “슬라브주의는 호먀코프의 지휘하에 있는 경기병과 셰부료프(S. P. Shevyrëv)와 뽀고딘(M. P. Pogodin)의 지휘하에 있는 극단적으로 중무장한 보병을 가진 완전한 전투 군단이며 끼예프 시대 이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극단적 자코뱅주의이다.”¹²⁾ “그들의 정교(正敎), 역사학적인 애국심과 민족체(народность)에 대한 과민하고 과장된 감정은 그들 편익대로 극단화된 것이다.”¹³⁾라고 그들의 전투적이고 극단적인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민족체에 관한 이념 그 자체는 보수적인 이념에 불과했다.”¹⁴⁾ 그는 “여러 사건들에 의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페제르부르그 시대

7) “1843년 가을,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 <...> 그 때 까지는 단지 (그들에 관해) 말로만 들어 왔던 <...> 헤르젠 등을 알게 되었다.” Annenkov, 앞의 책, pp. 81-5.

8) 위의 책, p. 95.

9) A. Walicki, 앞의 책, pp. 172-4.

10) A. Herzen, *My Past & Thoughts*, vol. 2, pp. 390-4

11) A. Herzen, “our opponents”, in *My Past & Thoughts*, vol. 2, p. 515.

12) 위의 책, p. 530.

13) 위의 책, pp. 511-2.

에 의해 흐려진 독자적인 문화를 러시아가 한 때 가지고 있었다는 그 생각에 슬라브주의자들의 과오가 있다”¹⁵⁾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우리[서구주의자들]가 우리[러시아] 역사의 유아기에 대한 그들의 유치한 충성서약과 다룰 수야 없겠지만 <...> 그들이 학문과 관계하여 그리고 종파주의에 관계하여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취하는 종교적인 성격의 불관용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들의 의무로 했었다”¹⁶⁾라고 그들과의 이념적인 대립이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다.

1840년대의 서구주의자들은 주로 헤르젠의 집이나 그라놉스끼(T. N. Granovsky)의 집에서 자주 모였다. 훨씬 뒤인 50년대에도 헤르젠은 러시아의 예술을 찬미하면서 “그것이 뽀뜨르의 천재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러시아 예술의 진정한 특성인 음울함은 니콜라이 이후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뽀뜨르 이후의 러시아사는 전적으로 귀족 계급의 역사이며 이 계급에 대한 유럽의 영향의 역사일 뿐인데, 그럼에도 귀족계급의 규모가 5월 31일의 입법 이후의 프랑스 유권자들의 전체 숫자의 겨우 절반에 불과하다고 헤르젠은 개탄하고 있다.¹⁷⁾ 헤르젠은 “그라놉스끼의 사람들은 모스크바 사회가 지적 독립이라는 이념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서구의 사상을 환영했다.”¹⁸⁾라고 서구파로서의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의 자서전의 거의 대부분이 1861과 1866년 사이에 저술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럽을 통한 러시아의 자유화’라는 그의 입장은 거의 헤르젠의 최후까지 그대로 견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위의 책, p. 512.

15) 위의 책, p. 527.

16) 위의 책, p. 511, 이러한 지적 불관용에 대한 그의 분노는 개인주의를 거부하면서도 그가 최후까지 견지했던 개체성에 대한 강조와 관계가 있다. A. Walicki, 앞의 책, pp. 162-82, Malia는 “1842년경에 그 집단들 사이의 차이들이 심화되었다.”라고 말한다. M. Malia, *Alexander Herzen and the Birth of Russian Socialism*, (The Universal Library, Grosset & Dunlap, New York, 1965), p. 282.

17) 1850년 5월 31일에 제정된 프랑스의 선거법을 말한다. 성년 남자들의 보통 선거를 폐지하였는데, 그렇게 하여 등록된 선거권자가 천만에서 700만으로 줄었다.

18) A. Herzen, *My Past & Thoughts*, vol. 2, p. 531.

3. 망명 이후, 방황자 헤르젠

유럽 특히 파리는 헤르젠에게 있어서 이중적인 감정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1849년 독일 여행 중 그는 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파리라는 말은 내게는 ‘모스크바’라는 말과 거의 같다! <...> 나는 데몰랭(Camille Desmoulins)이 푸른 나뭇잎을 쥐어 자기 보자에 걸고 ‘바스티유로(à la Bastille)’라고 외쳤던 판디 로얄에 있는 카페 포이와 시청만 보고 (싶나). <...> 방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 바쿠닌(M. Bakunin)과 사조노프(N. Sazonov)를 찾아보기 위해 아무 곳이나 돌아 다녔다. <...> 나는 한 거리의 모퉁이에서 그[바쿠닌]을 만났는데 그는 흡사 모스크바에서처럼 세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 (파리:) 나의 유럽 생활의 첫 지기이다. <...> 이제 잠에서 막 깨어난 이태리에서의 기분 좋은 여행, <...>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온 편지들’에서 서술했던 것들이다.”¹⁹⁾ 그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향수와 낭만적 환상 그리고 혁명으로의 희망 등이 함께 어울려 채색된 파리를 좀 더 솔직하게 그리고 있다. 뒤에 거론하겠지만 유럽에서의 실제 생활을 통하여 그에게 ‘실망과 희망’로 다가오는 유럽의 모습은 오히려 역으로 망명 이전의 헤르젠이 얼마나 환상적으로 채색된 유럽을 그리고 있었던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헤르젠은 1840년대에 슬라브주의자들이 제기했던 촌락공동체에 관한 문제를 서구주의자들 가운데 진지하게 고려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²⁰⁾ 그리고 1840년대 초반 호마코프와의 격렬한 논쟁이 후기에 이르러 헤르젠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안넨코프는 증명하고 있다.²¹⁾ 이러한 사실들은 헤르젠이 유럽에 대해 가졌던 이중적인 감정이 헤르젠 자신 속에 이미 내재해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그의 유럽관은 이중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1848년의 경험은 그에게 환상의 일부가 깨어지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848년의 경험에 뒤따르는 이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예

19) 위의 책, p. 646.

20) A. Walicki, *The Slavophile Controversy*, (trans. by Hilda Andrews-Rusieck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9), p. 580.

21) Annenkov, 앞의 책, pp. 98-9.

를 들면 짐머만(Judith E. Zimmerman)은 “1848년 5월초부터 1849년 6월까지 헤르젠은 파리에 머물러 있었다. <...> 이 13개월은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²²⁾고 말한다. 짐머만은 6월 폭동의 와중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겪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분노 등을 그와 그의 가족의 편지들을 통해 예시하면서,²³⁾ “1848년 여름 동안 헤르젠은 혁명 과정의 가장 극적이고 가장 무서운 사건들을 관찰하는 방관자로 머물러 있었다. 그가 비록 프랑스 급진주의자들과 약간의 접촉은 있었지만 소규모의 러시아인들의 집단 내에서 주로 교류했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그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²⁴⁾라고 비러시아인들과의 교류에 소극적이었던 그의 인간적 측면을 지적한다. 그는 헤르젠의 독일 지방 여행에 대해서도 “헤르젠의 여행은 (그의) 글이 시사하듯이 대단히 피상적이다. <...> (그 곳에서도 심지어) 마르크스가 개입되어 있었던 적극적인 노동 계급의 운동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거의 없었을 것이다.”²⁵⁾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헤르젠은 1848년 이후부터는 유럽을 ‘구유럽(Old Europe)’과 다가올 새시대의 노동 계급이 주가 되는 ‘새로운 유럽(New Europe)’으로 명확히 구분하면서²⁶⁾, “오늘날 누구도 유럽의 운명에서 프랑스가 작용했던 그 엄청난데 중요한 역할을 눈감아 버리거나 은혜를 저버리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할 수는 없다.”²⁷⁾라고 혁명을 만들어 가는--새로운 유럽을 만들어 가는--프랑스의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래는 러시아에게만 달려 있지는 않다. 그것은 전체로서의 유럽의 미래와 묶여 있다. <...> 유럽이 우리보다 연로(年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회 혁명과 다른 한편으로는 슬라브 세계의 운명 사이에 <...> 밀접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를 것이다.”²⁸⁾라고 러시아의 혁명을 위해 유럽의 혁명에 대

22) J. E. Zimmerman, *Mid-Passage: Alexander Herzen and European Revolution, 1847-1852*,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London, U. S. A., 1987), p. 76.

23) 주로 6월부터 8월 사이에 Herzen과 그의 딸 Natalie Herzen이 그의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소개하고 있다. 위의 책, pp. 81-8.

24) 위의 책, p. 76.

25) 위의 책, p. 34.

26) 이 부분은 특히, A. Herzen의 “From the Other Shore”에 잘 요약되어 있다. A. Herzen, *From the Other Shore and the Russian People and Socialism*, (introduction by Isaiah Berlin, George Braziller, INC., New York, 1956)을 참조하라.

27) A. Herzen, “An Open Letter to Jules Michelet,” in *From the Other Shore and the Russian People and Socialism*, p. 179.

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베를린 등지를 여행하면서도 1848-9년 이후에는 유럽의 노동 운동에서 이미 명확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에 관해 어떤 성격의 것이건 간에 전혀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극성'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⁸⁾

자신의 역사 철학을 공식화하고자 했을 때, 헤르젠은 40년대의 서구주의자들--특히 벨린스끼(Belinski)와 까벨린(K. Kavelin)--과 슬라브주의자들로부터 불러받았던 요소들을 복합시켰다고 발리츠키(A. Walicki)는 말하고 있다.³⁰⁾ 러시아로부터 파리에 도착한 이후 그는 유럽의 시민문화 속에서 천박함을 느끼고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짐머만은 "그는 사회주의자였고 그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반대자였다"³¹⁾라고 평하면서 헤르젠의 마음 속에 '낮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잠재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짐머만은 극장에서 종종 듣게 되는 일련의 상스런 농담들--헤르젠은 그것들을 부르주아 사회의 산물이라고 간주했다--에 대한 그와 그의 가족들의 거부감 등을 예시하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극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헤르젠이 찬사를 보냈음을,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부패에 얽힌 광범한 추문들과 한 공작이 염문에 얽히어 그의 부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했던 사건을 헤르젠이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²⁾ 헤르젠의 심미적이고 귀족적인 취향을 어지럽혔던 서유럽에서의 경험은 그의 자서전의 여러 곳에 서술되어 있다. 자서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제출했던 여권의 내용도 읽지 못하는 술취하고 늙은 이태리 관리의 불친절함과 꽤니히스베르그와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겪은 역무원들과 승무원들의 이런 저런 불친절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자신의 돈을 저축하고자 했던 의도가 일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기록을

28) 위의 책, pp. 201-3, 50년대 초반에도 여전히 서구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문은, 1848년의 6월 폭동 이후에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 "당신들 같은 부르주아지의 옹호자들은 진흙탕에 빠져 버렸다." (F. Venturi, 앞의 책, p. 29에서 재인용)라고 분개했던 사실과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 40년대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러시아인들에게 거의 냉담했었는데 심지어 엥겔스는 헤르젠이 포함된 망명 중인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그들 중 일부는 (러시아 정부의) 첩자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Engels an Marx, Sept. 18, 1846, M. E. W., 27, p. 52.

30) A. Walicki, *Russian Thought*, p. 166.

31) J. Zimmerman, 앞의 책, p. 39.

32) 위의 책, pp. 40-1.

남긴 프랑스에서의 주택 매입에 관한 건이다. 일종의 사기 사건에 말린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계약에 임하면서 그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은 헤르젠이 서구의 로마법에 기초한 계약 문화에 아직 전혀 적응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³³⁾ 이러한 서유럽의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나뭇의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귀족 계급의 문화가 소매 상인들의 천박하고 세속적인 문화로 대치된 것에 그는 점차 혐오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특히 1848년의 부르주아지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헤르젠으로 하여금 ‘역사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잃게 했을 것이라고 발리츠키는 말한다.³⁴⁾

그러므로 과거에 그가 찬미했던 서구와 그 서구의 문화도 50년대의 헤르젠에게는 ‘구 유럽’과 러시아의 차이란 “당신들의 법과 우리의 칙령 사이에 존재하는 전문(前文)의 어귀의 차이”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 차이도 칙령이 ‘짜르가 명하건대’라는 고통스러운 진실로 시작하는 반면에 당신들의 법은 3축을 가진 공화국이란 구호와 프랑스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된 주문(呪文) 등과 같은 역설적인 거짓으로 시작될 뿐이며, “니콜라이의 법전은 전적으로 인류를 배반하고 권위를 옹호하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나폴레옹 법전도 실제로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미슐레(Jules Michelet)에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유산에 대한 당신의 애착입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인간적인 것도 기독교적인 것도 아닌 이런 진부한 당신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우리가 솔직하게 받아들일지

33) A. Herzen, *My Past & Thoughts*, vol. 2, pp. 641-4. 그 집이 7만 프랑에 저당 잡혀져 있다고 했으므로 헤르젠이 먼저 7만 프랑을 주고 부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실제 그 집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많은 저당이 잡혀져 있었다. 중개인이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만 두십시오.’라고 권했고 헤르젠은 결국 ‘자신의 경솔한 믿음 때문에’ 1만 프랑밖에 돌려 받지 못했다. 게다가 바로 그 무렵인 1849년 6월에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안에 남아 있던 헤르젠의 영지를 초법적인 조치로 몰수해 버렸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의 어머니는 불가피하게 파리로 건너 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위의 책, pp. 759-60.

34) A. Walicki, *Russian Thought*, p. 163. 심지어 말리아는 피터대제에 대한 명확한 찬사가 헤르젠에게서 결여되었다는 점을 그와 평균적인 서구주의자들과의 입장의 차이를 구분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M. Malia, 앞의 책, p. 306. 이밖에도 짐머만은 1849-52년 사이에 헤르젠이 겪었던 가족적인 불행 -어머니, 어린 아들, 자신의 부인 등이 이 기간에 사망했다-이 그의 젊음이 넘치는 신념을 깨트려 버렸다고 말한다. J. Zimmerman, 앞의 책, p. xi-xii.

습니까?”³⁵⁾라고 구 유럽 문화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결국 구 유럽은 헤르젠에 의해 그것의 뿌리가 부정되고, 로마법적인 토양 위에 자리온 개인주의적이고 부패하고 천박하게 타락한 문화로서 사라져야만 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간주되었다. 그는 “자연은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단 한 장의 키드로 도박하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공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영원의 도시 로마도 쇠퇴하고 분해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³⁶⁾라고 말한다.

서구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그 서구의 시민 문화 자체를 혐오하고 거부하고 있는 헤르젠과 러시아 안의 평균적인 서구주의자들과의 사이에는 따라서 상당한 기리가 생기날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서구주의자들의 서클들이 헤겔 철학의 수용 여부와 관계하여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졌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토착 문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슬라브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기존의 러시아 사회의 개혁을 희망하는 개혁론자들이었다.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의 ‘대개혁’의 과정에서 이들 개혁론자들 내부에서 일어났던 서로간의 교류와 갈등은 이후의 러시아사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살롱 사교계에서의 동료 서구주의자들이었던 치체린(B. N. Chicherin), 까벨린, 푸르게네프 등과 헤르젠의 우호적인 관계는 50년대와 60년대의 대개혁을 둘러싸고 야기되었던 러시아 안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 별이저했다.

1848년의 강혁은 헤르젠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혁명’에 대해 관념적으로 짐작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30년대까지는 분명히 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개혁을 헤르젠은 머리 속에 그리면서 만신반의하고 있었겠지만, 이미 50년대 후반의 헤르젠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대개혁의 초기인 1858년에 치체린은 헤르젠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황제와의 협조를 통한 개혁을 치체린은 여전히 구상하고 있었으므로 서로의 거리만 확인하였다.³⁷⁾ 예를 들면 헤르

35) A. Herzen, “An Open Letter to Michelet,” pp. 199-200.

36) 위의 책, p. 179.

37) 헤르젠과 치체린의 만남에 대해서는, Schapiro, 앞의 책, pp. 100-1, Venturi, 앞의 책, p. 744, A. Herzen, *My Past & Thoughts*, vol. 2, pp. 624-9의 N. Kh. Ketcher에 관한 장 속에 이 만남에 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헤르젠은 1857년 가을에 치체린이 방문한 것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젠은 치체린을 프랑스식 민주제의 사도이면서도 영국식 자유는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았고,³⁸⁾ 그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헤르젠은 ‘사물에 대한 교조적 태도는 종교적 태도’³⁹⁾라고 비난하였다. 비슷한 관계는 까벨린과 헤르젠의 사이에서도 보인다. 대개혁 특히 농노 해방의 과정에서 까벨린의 역할은 중요했는데 그의 역할에 힘입어 농노가 토지를 가지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헤르젠의 주장은--헤르젠 자신은 불만스러워 하고 대단히 미흡해 했지만--관철될 수 있었다.⁴⁰⁾ 비록 치체린과 헤르젠이 갈등을 빚을 때에 까벨린이 헤르젠을 변호했다고는 하지만, “1840년대에 독일에서 들어온 허무주의가 러시아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 정부의 억압 정책 때문이었는데, 1863년의 폴란드 봉기 이후에 헤르젠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개혁과 자유의 확산에 의해 허무주의의 토대가 약화된 결과”⁴¹⁾라고 했던 까벨린의 말이 시사하듯 까벨린에게 있어서 헤르젠 등은 개혁 과정의 여론 형성에는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용불가능한 허무주의자 즉 급진주의자로 이미 간주되고 있었다.

1862년 봄 푸르게네프가 런던으로 헤르젠을 방문함으로써 야기된 이후의 논쟁은 ‘러시아의 길’과 관계되는 문제를 일으켰다. 과거 살롱 사교계에서는 두 사람이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 푸르게네프에게 헤르젠은 혁명에 집착하는 의심스런 사람이었고, 그는 헤르젠이 말하는 소농의 도덕적 우월성도 믿을 수 없었다. 푸르게네프에게 러시아의 “촌락 공동체란 그것 위에 국가가 세워진 토대에 불과했고 (그것으로부터) 국가가 주도되어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⁴²⁾ 푸르게네프가 찬미하는 서구와 그 문화란 헤르젠이 이미 미슐레에게 보냈던 ‘공개 서한’에서 보이듯이 그에게 있어서는 높고 타락한 존재에 불과했다. “서유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

38) A. Herzen, *My Past & Thoughts*, vol. 2, p. 625.

39) 위의 책, p. 627.

40) 임영상, “K. D. 까벨린과 사회개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pp. 147-8.

41) 위의 책, pp. 149-50.

42) Turgenev to Sergei Aksakov, May 25, 1856., Schapiro, 앞의 책, p. 104에서 재인용. 헤르젠에 대한 푸르게네프의 의심은 그 문제 자체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소농의 해방은 토지의 해방과 같은 것이다. 토지의 해방은 다음 차례로 사회 혁명을 인도하고 극히 신성한 농촌 공산주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라는 헤르젠의 표현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Herzen, “An Open to Letter to Michelet,” p. 189.

기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며⁴³⁾ 비록 '러시아인들이 야만적인 힘에 경배하고 있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노예들이긴 하지만 서구는 무엇이 일어나건 우리가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우리의 적진'⁴⁴⁾인 그러한 상대였다.

유럽을 러시아의 적으로 설정하면서도 헤르젠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온 오래 묵은 문명은 사람들이 즉각 얻어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갖게 됩니다. 이 속에서 인간의 운명은 라인 포도주의 운명파도 유사합니다. <...> 우리가 문화에 길들여진 것은 우리의 기억에도 일천합니다. <...> 옛 시절의 편협하고 전통적인 도덕성은 명예라는 귀족적 관념이나 용기와 독립성이라는 시민적 관념 그 어느 것으로도 대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군대 안에서는 독일 병사(兵舍)의 규율로, 공식적인 관리들 속에서는 비굴한 자기비하와 노예적인 의뢰인제로 대치되었습니다.”⁴⁵⁾라고 푸르게네프에게 부분적으로는 동조하듯이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매맞는 관리인 귀족이 정부 밖에서는 때리는 쾨프르 1세로 바꿉니다. <...> 늑대와 계몽된 사람이 함께 하는 이러한 삶은 거대한 괴물을 낳았습니다.”라고 귀족 계급의 교활함과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야수의 젖을 빨고 자랐던 로무루스와 레무스처럼 12월 14일의 그 사람들이 영웅들의 밀집부대로서 봉기했었는데 그들은 <계몽된 사람들>이었습니다.”⁴⁶⁾라고 하면서 계몽된 귀족으로서 진보를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헤르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푸르게네프와 특히 치체린 등에 대해 “역사의 방향은 비밀스런 사업이 아닙니다! 공론가들의 불운은 우리의 디드로처럼 자연과 역사 그 자체가 적임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논쟁하는 것입니다”⁴⁷⁾라고 비난한다. 그는 ‘광신적인 마찌니가 잘못했지만 그의 그 엄청난 그 실수가 카부르와 통일된 이태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나는 지식인들과 공론가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우리 노예들의 분노를 예언합니다’⁴⁸⁾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혁명의 예언자로 자처한다. 마찌니와 코수트 등의 예를 들어 그는 그 길이 매우 험난하고 자기 희생으로 가득차 있으며, 그것이 역사의 진보를 위한 정당

43) A. Herzen, "An Open Letter to Michelet", p. 141.

44) 위의 책, p. 200.

45) A. Herzen, "종말과 시작(КОНЦЫ И НАЧАЛА)", 종(КОЛОКОЛ), 1862. 10. 22., pp. 1222-3.

46) 위의 책, p. 1223.

47) "КОНЦЫ И НАЧАЛА", КОЛОКОЛ, 1862. 9. 1., p. 1190.

48) "КОНЦЫ И НАЧАЛА", КОЛОКОЛ, 1862. 8. 1., p. 1158.

한 길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서술하고 있다.⁴⁹⁾

헤르젠은 부르쥬아들의 시민 문화에 대한 혐오와 거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는 파리에서 전셋집을 구할 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호텔방도 사람이 사는 마굿간도 아닌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향수, 그리고 뚱뚱한 아주머니에 대한 펜스런 거부감” 등을 적고 있다. 런던에서 조잡한 담배나마 어렵게 구하는 한 애연가와 대화 등을 소개하면서도 변화한 물질 문화 속에서의 궁핍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 무렵 나는 우리 러시아인들이 처음에는 대단히 좋아했던 혼잡스럽고 때 밀려다니는 그 문명을 점차 싫어하게 되었다. 나는 이미 공포와 불신이 뒤섞여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서구 문화 전반에 대한 회의를 표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거부 의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소시민계급은 서유럽이 갈망해 온 이상입니다……. 그들 소시민계급에게는 두 가지 재능이 있는데 중용과 정확성입니다. 중산계급의 삶은 작은 결점들과 작은 미덕들로 가득차 있는데, 흔히 구두쇠같은 그 미덕은 자기 절제와 극단을 회피하는 것입니다.”라고 소시민계급의 미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소시민계급 전체의 특성은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이라면 그것이 예술에 대립되며 예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그[소시민계급] 속에서 염소 속에 놓여진 푸른 나뭇잎처럼 시들어버립니다. 단지 인류 모두에게 내재된 열정만이, 부르쥬아지의 삶과 단절함으로써 좀 더 좋게는 그것의 규범을 깨뜨림으로써 예술적인 의미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격렬히 비난한다.⁵⁰⁾ 아마도 헤르젠에게 있어서 이것은 ‘진정한 인간적 세계’를 살려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그의 귀족적이고 심미적인 취향에 맞지 않는 계약제적인 성격의 로마법 위에 기초한 서구 문화와 그리고 그 속에서 소시민계급이 이루어 놓은 물질 문화에 대한 회의 등이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과 유사한 감정과 함께 얽혀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⁵¹⁾

49) “КОНЦЫ И НАЧАЛА”, КОЛОКОЛ, 1862. 9. 15., pp. 1197-8.

50) “КОНЦЫ И НАЧАЛА”, КОЛОКОЛ, 1862. 7. 1., p. 1143.

51) 발리츠키는 헤르젠의 비관주의를 유럽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던 서구주의자들의 그것으로 평하고 있다. 헤르젠은 자신의 그러한 절망을 ‘우울한 연인의 변덕(whim)’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아마도 서구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A. Walicki, *Russian Thought*, p. 165.

4. 인민주의자 헤르젠

1848년의 경험과 서유럽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 등이 함께 하여 현실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세계인 러시아로 헤르젠을 몰아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 헤르젠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세계로의 희망을 서구 문명에 아직 몰들지 않은 러시아의 소농들 속에서 찾고 있었다. '호마프프와의 논쟁이 후기에 이르러 헤르젠의 정신과 마음속에 슬라브주의적인 색채가 자리잡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안넨프프의 지적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라브린(J. Lavrin)은 인민주의와 슬라브주의 사이의 유사성들과 차이점들을 대비하고 있으며⁵²⁾, 젠코프스끼(V. V. Zenkovskii)도 '인민(народ)'에 관한 헤르젠의 관념과 도스토예프스끼의 그것 사이의 유사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젠코프스끼는 그 유사성을 지적하면서도⁵³⁾ 헤르젠을 전체적으로 슬라브주의자나 범슬라브주의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는 "헤르젠의 신념의 핵심에는 자유에 대한 절대적 숭배와 결합된 인간성과 인간의 진보라는 믿음이 놓여 있다."⁵⁴⁾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헤르젠의 인민관과 미술레의 그것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끼의 종교관과 인민관이 미술레에게 영향을 주었고, 라메네(F. R. de Lemennais)와도 유사하다는 콘(H. Kohn)의 지적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⁵⁵⁾ 이러한 점들은 동서유럽을 막론하고 당시의 개혁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유사성이 시사하는 바는 한 사람의 인민관 그 자체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52) J. Lavrin, *Russia, Slavdom and The Western World*, (published by Geoffrey Bles, London, 1969), pp. 115-23.

53) V. V. Zenkovskii, *Russian Thinkers and Europe*, (trans. by Galia S. Bodde, published for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Michigan, 1953), p. 174.

54) 위의 책, p. 64.

55) 1853년에 미술레는 폴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가 되었고, 이 곳의 동료 교수들인 Quinet와 폴란드 출신의 시인으로 슬라브어와 슬라브 문명을 가르쳤던 A. Mickiewicz와 단짝이 되었다. 이들 셋은 함께 그 시대의 도덕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중에서 Mickiewicz를 특히 'Lamennais의 사도'라고 콘은 표현하면서 Lamennais의 영향이 Michelet에게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H. Kohn, *Prophets & Peoples*, (Collier-Macmillan, LTD., London, 1961), pp. 55-8.

사상의 윤곽과 그 생애 속에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헤르젠은 러시아를 '공식적인 러시아 혹은 공식적인 사회'와 '러시아의 인민'이라는 이분법 형식으로 구분한다. 그는 미술레에게 “귀하, 당신은 왜 러시아 인민을 나무라십니까? 당신이 하는 비난의 실제 본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러시아인은 거짓말장이이고 도적이다. 그들[러시아인]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도적질한다.'라고 말합니다. 귀하, 나는 이러한 관찰의 지나친 일반화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간단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경우에 희생자가 누구입니까? 러시아인들이 누구에게 거짓말했고 그들이 누구로부터 훔쳤습니까? <...> 한 위대한 사상가가 말했듯이 교활함은 짐승 같은 힘의 역설인 것입니다.”⁵⁶⁾ 라고 러시아 인민들의 도덕성을 변호한다. 오히려 그는 “소농들은 절망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견뎌 왔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그들의 공동체를 지탱해 왔습니다. <...> 불쌍한 소농의 운명은 확실히 동정받을 만한데도, 아직도 아무런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동정 대신에 그들은 욕설을 퍼먹었습니다. <...> 이런 식으로 당신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이 불운한 인민들을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⁵⁷⁾ 라고 미술레를 힐난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러시아는 결코 프로테스탄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결코 중도론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짜르 니콜라이를 제거하려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그를 제거하여 다른 다수의 짜르들로 대치시키려는 혁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⁵⁸⁾ 라고 반(反)서구적인 감정을 노골화하면서 자신이 그리고 있는 완전한 사회 혁명을 시사하고 있다.

헤르젠이 그리고 있는 혁명의 모습은 “뵘프르 이후에 교육받은 중간 계급은 이제 더 이상 평민이 아니고 지주 계층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이들 지주 인텔리겐찌야인 교육받은 사람들을 보편주의자로 양육시킴으로써 현재의 러시아 사회로부터 소외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보편주의자가 되면 자연 그 사회로부터 소외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혁명의 대열로 모일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미래는 인텔리겐찌야의 문화와

56) A. Herzen, "An Open Letters to Michelet," p. 180.

57) 위의 책, p. 190.

58) 위의 책, p. 200.

평민들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⁵⁹⁾ 그러면서도 그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하여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당신이 한 것 같은 이러한 추도사를 읽는 시간은 끝났다고 우리가 느끼기에 당신과 ‘무덤 속에 있는 생명의 불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의심하지만, <...> 우리는 그것을 보아 왔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니다.”라고 당시의 유럽인 누구도 전혀 떠올리지 못했던 러시아 혁명 즉 그 완전한 혁명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무덤 속에 있는 생명의 불꽃이며 완전한 혁명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근거를 헤르젠은 ‘촌락 공동체의 원형인 공동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 가족’으로 이해했다.⁶⁰⁾ “공동체의 유기적인 삶은 당국에 의해 자행되었던 모든 탄압들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소생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 때까지 그것이 살아 남았습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이것은 행복한 섭리인 것입니다.”⁶¹⁾라고 그는 공유제, 가족적인 유기적 삶 등을 제시하고 그러한 사회의 도래를 ‘역사의 섭리’에서 찾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정부와 인민은 아무런 공동의 토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것들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성장해 왔다. 절대주의-나폴레옹식 절대주의-가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문명과 단절하게 했고 동시에 모든 자유주의적 이념들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은 문명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게 했다. 그렇게 하여 짜리즘의 유일한 목적이 통치를 위한 통치가 되었다. 그러나 귀족 계급을 위한 귀족정은 지나치게 무의미하고 지나치게 빈약하여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반(反)민족적인 혁명

59) A. Walicki, *Russian Thought*, p. 169. 헤르젠의 이러한 측면은 민족주의 운동의 시각을 ‘기존의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뿌리 뽑혀진 인텔리겐치야’와 관계 짓는 E. Gellner의 분석과 산업화 혹은 근대화 과정에 있는 이행기의 사회에서 뿌리 뽑혀진 인텔리겐치야가 민족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A. D. Smith의 분석 등과 연관하여 헤르젠이 무의식적으로 러시아 민족주의의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E. Gellner, “근대화와 민족주의” (백낙청 역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사, 1981), pp. 127-65., A. Smith, “산업화와 인텔리겐치야의 위기”, 위의 책, pp. 166-219.

60) A. Herzen, “An Open Letters to Michelet”, p. 190.

61) 위의 책, p. 186.

으로 태어난 러시아의 귀족정은 광대한 제국, 거대한 군대, 중앙 집권화된 정부를 만들었고 더 이상 행할 아무 것도 없어서, 이제 모든 섭리들과 전통들이 결여된 것 즉 이미 예정된 과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새로운 섭리가 나타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⁶²⁾ 그러나 이러한 섭리관은 자연이 “단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것을 도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유럽혁명]은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면 유럽 역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미국에서 계속될 것이다.”⁶³⁾라고 자연주의 위에 기초한 다원적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혁명가로서의 그의 강한 주의주의(voluntarism)적 성격이 그러한 다원적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1848년 이전의 러시아는 혁명의 반열 위에 오를 수도 없었다. 그 때 러시아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무덤속의 생명의 불꽃이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⁶⁴⁾라고 거듭 자신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이런 측면들 속에서 좀 더 뒤에 그를 ‘러시아 인민주의의 아버지’가 되게 했던 그 주장들과 라브로프와 미하일롭스끼(N. Mikhailovsky)로 이어지는 인민주의의 주관적 방법론의 뿌리를 발리츠끼는 발견하고 있다.⁶⁵⁾

헤르젠이 인민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해 갔던 1850년대 후반에 개혁의 폭과 귀족들에 대한 공격 등에서 좀 더 급진적이었던 체르니셴스끼(N. G. Chernyshevskii) 등을 따르는 급진주의자들이 러시아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 젊은 급진주의자들은 40년대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거의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헤르젠은 이례적으로 제목만 영어식 표기로 된 “대단히 위험하다(Very Dengerous!!!)”란 글을 통해, “최근에 우리의 언론활동에 사고의 음침함인 어떤 유해한 경향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의 의견 표현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⁶⁶⁾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시작하여 급진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인 출판물들과 자유주의적인 전통들을 폭로 문학을 수단으로 하여 비판함으로써 “결국 짜르 체제에 교사된 광대들이 되었다”라고까지 비난하였다.⁶⁷⁾

62) 위의 책, pp. 186-7.

63) 위의 책, p. 201. Herzen 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КОЛОКОЛ 속에는 “미국과 시베리아(Америка и Сибирь)”(1858. 12. 1.) 등 미국에 관한 글이 몇 편 있다.

64) A. Herzen, “An Open Letters to Michelet”, pp. 201-2.

65) A. Walicki, *Russian Thought*, pp. 174-5.

66) A. Herzen, “Very Dangerous!!!”, КОЛОКОЛ, 1859. 6. 1., p. 363.

이와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체르니шев스끼가 1859년 6월말 경에 런던으로 방문하였다. 이 4일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발리츠키는 “오해는 해소되었지만 의견의 차이는 남아 있었다”라고 평하고 있고⁶⁸⁾, 벤츄리는 체르니шев스끼가 그의 동료 도브롤류보프에게 보낸 편지의 “정말, 내가 좀 말해야겠는데, 그[헤르젠]는 까뻬린과 꼭 같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⁶⁹⁾란 귀절을 인용하면서 평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잇따른 급진주의자들의 공격’⁷⁰⁾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헤르젠은 “잉여인간과 안달하는 사람들(лишние люди и желчевики)”을 자신이 출판하는 <종(КОЛОКОЛ)>이라는 잡지에 1860년 10월 15일자로 게재하였다.

헤르젠은 “우리들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옛 동지들에게 섭섭해하면서, 니콜라이의 진료소(никولاевский лазарет)를 나온 뒤에 그들을 뒤따르는 한 떼거리의 환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라고 여전히 급진주의자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심의 제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⁷¹⁾라고 질문한다. 동시에 급진주의자들의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 사건은 세월이 지날수록 정부가 그들과 맞서 있을 뿐만 아니라 <...> 인민들 역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며, 혹은 적어도 그들과 완전히 이방인이라는 놀라운 전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⁷²⁾라고 70년대 초반의 ‘인민 속으로(в народ)’의 운동에서 거의 모든 젊은 대학생들이 경험했던 사실을 60년대 초반의 헤르젠이 지적하고 있다.

잉여인간과 ‘안달하는 사람들’에 관한 헤르젠의 정의는 이렇다. “그[차다

67) 위의 책, pp. 363-4.

68) A. Walicki, 앞의 책, p. 208.

69) F. Venturi, 앞의 책, p. 518. K. Kavelin이 60년대에 A. 헤르젠을 심지어 허무주의자로 평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 서구주의자들의 내부와 러시아의 상황의 미묘함을 유추할 수 있다.

70) 예를 들면, ‘M. I.’란 익명으로 1860년 4월 1일자의 КОЛОКОЛ에 게재된 “郡에서 온 편지(письмо из провинция)” 등이 있는데, 이 편지의 실제 필자를 벤츄리는 체르니шев스끼는 아닐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고, 발리츠키는 도브롤류보프라고 추측하고 있다. F. Venturi, 앞의 책, pp. 158-9, A. Walicki, *Russian Thought*, p. 208.

71) A. Herzen, “잉여 인간과 안달하는 사람들(лишние люди и желчевики)”, 1860. 10. 15., КОЛОКОЛ, p. 689.

72) 위의 책, p. 690.

예프]는 도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러시아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글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있다. <...> 차다예프는 게으른 사람이 되었다. <...> 끼리엡스끼(Иван Киревский)는 잉여 인간이 되었다. 물론 폴레보이(Н. Полевой)는 게으름과는 관계가 없다.”⁷³⁾라고 ‘게으름’이나 아니면 ‘유익함이 없음’ 등과 잉여인간을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급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잉여인간과는 다르다. 그들 급진주의자들에게 잉여인간은 행동하지 않으며 혁신에 장애가 되는 1840년대의 지주 자유주의자들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였다. ‘안달하는 인간’에 대해서 헤르젠은 이렇게 말한다. “역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에서 그들은 초기 시절의 젊음을 역시 잃어버렸습니다. <...> 그들은 너무 빨리 조숙해버렸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앞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잉여인간들이 아닙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격분한 사람들이고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입니다.”⁷⁴⁾ 더 나아가 좀 더 직설적으로 “우리는 안달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연구해 왔는데 <...> 우리에게 충격을 준 첫번째 특성은 그들이 모든 것에 쉽게 절망하는 것, 혁신에 대한 악의에 찬 회멸, 그리고 그들의 가공할 무자비함입니다. <...> 이들의 결론대로라면 러시아인들은 전통도 관습도, 다시 말해 잃어버릴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인들에 비해 놀라운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것이거나 타인의 것이거나 간에 아무런 재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위험한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⁷⁵⁾라고 신랄하고 냉소적인 역설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냉소가 섞인 역설 속에는 또 다른 역설이 존재한다. 그가 미슬레에게 했던 항변과 그에게 충격을 주었던 급진주의자들의 주장 사이에는 ‘백지 상태의 이점’이라는 차다예프식의 논리가 함께 하고 있다. 다만 급진주의자들이 그것을 좀 더 극대화시켰다는 차이점은 볼 수 있다.

그 차이가 사회주의라는 동일한 목적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체르니шев스끼의 “까벨린과 꼭 같다”는 평은 급진주의자들의 편견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헤르젠을 허무주의자로 평했던 까벨린의 평이 내용상의 진실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러시아 내의 해석은 헤르젠이 ‘진정한 혁명으로의 길을 의심

73) 위의 책, pp. 691-2.

74) 위의 책, pp. 690-1.

75) 위의 책, p. 691.

했던 사회 개량주의자⁷⁶⁾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그의 방법론에 근거한 것으로 우파로부터는 물론이고 좌파로부터도 매도 받는 헤르젠의 미묘한 좌표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하더라도, 최근의 러시아 내의 해석은 헤르젠이 ‘까벨린과 꼭 같다’는 식의 일방적인 매도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샤피로(L. Schapiro)는 인민주의 속에 내재된 강렬한 러시아 민족주의의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헤르젠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헤르젠을 민족주의자로 분류할 수 없는 근거로 “헤르젠이 무신론자였고” “뵘프르의 개혁을 러시아의 긍정적인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두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다. 헤르젠은 비록 15년이 넘게 영국에서 살면서도 결국 영국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촌락 공동체에 심취해 있긴 했지만 끝까지 ‘합리주의자’로 머물러 있었다고 샤피로는 말한다.⁷⁷⁾ 그러나 말리아(M. Malia)는 ‘민족주의자 헤르젠’에 관한 부분에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말리아는 헤르젠이 슬라브주의자들과 구분되는 근거로서 러시아의 민족 전통 속에 깃든 모든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그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맹목적인 애국심과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문화적 우월론 등이 헤르젠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⁷⁸⁾ 그러므로 미술레에 대한 항변에서 “슬라브 세계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 시대 이후 명백해진 경향입니다. 슬라브 연방(Slavic federation)이란 이념은 페스텔(P. I. Pestel)과 무라비요프(N. Muraviov)의 혁명 계획 속에서도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⁷⁹⁾는 그의 주장, ‘인민주의의 아버지’라는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 혹은 그의 ‘인민관’이 도스토예프스끼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젤코프스끼의 지적 등은 분명 헤르젠이 가진 자기모순 혹은 양면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헤르젠이 끝까지 ‘합리주의자’로 머물러 있었고 ‘러시아의 자유화’에 집착했었다는 것 또한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그의 자유화

76) Л. И. НОВИКОВА, И. Н. СИЗЕМСКАЯ, редакторы-составители, 「인텔리겐찌야. 권력. 인민. (Интеллигенция. Власть, Народ.)」,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1993), p. 303.

77) Schapiro, 앞의 책, p. 82.

78) Martin Malia, *Alexander Herzen and the Birth of Russian Socialism*, (The Universal Library, Grosset & Dunlap, New York, 1965), p. 301.

79) A. Herzen, “An Open Letter to Michelet,” p. 172.

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권위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상당히 구체적 개념이다. 헤르젠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1863년의 ‘폴란드 봉기’일 것이다. 후일 레닌으로부터 “러시아 민주주의의 명예를 구원했다”라는 찬사는 듣게 되었지만,⁸⁰⁾ 헤르젠 자신은 폴란드 문제에 대한 그 자신의 입장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 버렸다. 폴란드 봉기가 러시아 안에 불러일으킨 ‘반(反)폴란드적 광기’가 어떠한가는 까벨린의 “폴란드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은 <...> 이곳에 있어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⁸¹⁾

러시아인으로서 헤르젠과 바쿠닌이 폴란드 봉기에 관계되어 있었다. 시베리아에서 탈주한 후 미국으로 건너갔던 바쿠닌의 범슬라브주의적인 색채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파괴, 완전한 파괴는 나의 유언이 될 것”⁸²⁾이라는 그 자신의 표현에도 잘 나타난다. 1862년 겨울부터 <토지와 의지(ЗЕМЛЯ И ВОЛЯ)>의 중앙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헤르젠과 바쿠닌은 폴란드 안의 자유주의자들과 접촉하였다.⁸³⁾ ‘국민 중앙 위원회’라는 영성한 폴란드인들의 조직과의 접촉은 몇 가지 진통을 수반했다. 헤르젠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폴란드 주 정부는 우리에게 동의하여 행동의 기초로서 다음을 받아들인다: ‘경작중인 토지에 대한 소농들의 권리와 각 민족의 완전한 자결권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승인한다.’”⁸⁴⁾라는 협약문을 헤르젠이 처음에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폴란드 대표 밀로비쯔(Milovicz)는 자결권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강조할 것을 제의했고 헤르젠이 약간의 수정에 동의하였다. 다음날 아침부터 바쿠닌이 “그들은 소농들의 토지 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주(州)들에 관해서만 너무 신경을 쓴다.”라는 불만을 헤르

80) A. Walicki, *Russian Thought*, p. 176 참조.

81) K. D. Kavelin to A. I. Skrebitskii, July 29, / August 10, 1863, in Alexis E. Pogorelskin, “Vestnik Evropy and the Polish Question in the Reign of Alexander 2,” *Slavic Review*, vol. 46, No. 1, Spring, 1987, p. 88에서 재인용.

82) M. Bakunin to A. Herzen and his friends, San Francisco, October 15, 1861, in A. Herzen, *My Past & Thoughts*, vol. 3, p. 1351.

83) F. Venturi, 앞의 책, p. 270.

84) A. Herzen, M. Bakunin and the Cause of Poland, *My Past & Thoughts*, vol. 3, p. 1357. 이 글이 쓰여진 때가 1865년 말이라고 글의 말미에 첨가하고 있다. 위의 책, p. 1371.

젠에게 표했는데, 이에 대해 헤르젠은 “바르샤바의 봉기 그 넘어 그(바쿠닌)는 폴란드인들이 공포와 반감 사이의 그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그 [바쿠닌]의 대 슬라브 연방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다. 우랄과 볼가 지역에, 우크라이나와 코카사스에, 가능하다면 동궁(冬宮)과 피터-폴 요새에도 <토지와 의지>의 붉은 기가 필력이는 것을 그는 이미 보았다.”⁸⁵⁾라고 오히려 헤르젠 자신의 바쿠닌에 대한 불만스런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

약간의 우여곡질을 겪은 뒤 1862년 12월에 재개된 협의에서 최종 합의된 협의문에는 토지문제나 연방 주권의 문제는 빠져 버리고 대신 봉기에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과 재정 지원에 관한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되어 있다.⁸⁶⁾ 그리고 협의문의 이면으로 거론되었던 ‘동시 봉기’가 깨어지고 ‘사전 통보’도 없이 1863년 1월에 폴란드 봉기가 일어났다. 폴란드 주재 러시아군 안의 극소수의 동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바쿠닌이 뜻밖에도 스투홀름으로 가버렸다”고 헤르젠은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⁸⁷⁾ 벤츄리는 이 부분에 대해 “바쿠닌의 러시아인 군단은 계획에 불과했다”라고 평하고 있다.⁸⁸⁾ 오히려 협의 중이었던 1862년말 경에도 폴란드인 대표가 자신들 쪽의 가담자들을 “뻘썸부르그에 수백명 폴란드에 3천명 정도”라고 말했을 때 곁에 있던 오가료프와 바쿠닌에게 헤르젠은 그 숫자에 대한 불신을 표하였다. 그 때 오가료프의 동정적인 침묵에 비해, 바쿠닌은 “물론 믿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될지라도 곧 그 만큼 될 것입니다.”라고 크게 웃었다고 헤르젠은 기록하고 있다.⁸⁹⁾ 이러한 자신의 기록들에 따르면 주장 봉기에 집착하는 바쿠닌에 의해 그리고 그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불신에 의해 폴란드 봉기가 서둘러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도 헤르젠은 협정에 충실하여 자신의 <종>을 통하여 폴란드 문제를 계속 제기하였고 봉기의 실패가 분명해졌을 때에도 “1863년은 1831년이 아니다. 만약 유럽이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수도와 지방의 동아리들이 <...> 집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의 사실로 믿는다.”⁹⁰⁾ 라고 폴란드 봉기

85) 위의 책, pp. 1367-8. 자신의 “Letters to an Old Comrade”에서 Herzen은 Bakunin이 러시아인들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선민(the chosen people)’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발리츠키는 말한다. A. Wałicki, 앞의 책, p. 179.

86) 불어로 된 협약문은 F. Venturi, 앞의 책, pp. 271-2 참조.

87) A. Herzen, “M. Bakunin and the Cause of Poland,” p. 1370.

88) F. Venturi, 앞의 책, p. 126.

89) A. Herzen, “M. Bakunin and the Cause of Poland,” p. 1370.

를 위한 선전을 계속하였다.

폴란드 봉기의 결과로 헤르젠은 러시아 안에서 여론의 지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헤르젠 자신의 글들을 통하여, 자유에 기초한 '민족 자결권'을 인정하는 그의 슬라브 연방이라는 개념과 범슬라브주의적인 바쿠닌의 개념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가 폴란드의 개별적 주권을 인정하였고 바쿠닌식의 범슬라브주의와 무조건적인 무장 봉기에도 회의를 표하고 있음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헤르젠의 언행과 민족주의와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에 관한 일반론이 먼저 규정되어야 하겠지만, 민족주의론에 관한 지금까지의 일반론만으로도 대체적인 규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민족주의는 낭만주의적 감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헤르젠은 관념적인 합리주의자였다. 1850년대 이후의 그의 언행에서 약간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라스끼의 지적처럼 헤르젠의 역사관은 그 뒤에도 여전히 합리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혁명가로서의 그가 주의주의적이었고 또한 그의 인민주의 속에 비록 슬라브주의적인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주의에 자신의 철학적 토대를 둔 민족주의자란 없다는 것 역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그가 끝까지 유럽 혁명을 통한 러시아의 혁명과 '자유'를 주장했는데--그것이 러시아가 자본주의의 국면을 거쳐야 한다는 가정과는 아직은 관계가 없었다--그가 말하는 자유화란 진정한 '인간성'과 개별적 자유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이 말하는 '공동체의 유기적 삶'이라는 이상과 부분적으로 충돌하고는 있다. 그러나 러시아 농민들에 대한 헤르젠의 변호를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가 일반적인 민족주의에서 흔히 보이는 '국가 이익' 혹은 '국가의 영광'이란 이념을 전제로 하여 러시아 농민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그에게 바람직하게 보였던 미래의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초로서의 러시아 농민을 언급하고

90) A. Herzen, "토지와 의지(земля и воля)", 1863. 3. 1., колокол, p. 1302.

있는 것이다.

‘잉여인간’과 ‘안달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의 정의와 논쟁 과정 그리고 네차예프(S. G. Nechaev) 사건 전에 보여준 그의 행동은 특히 1863년의 ‘폴란드 봉기’의 과정과 그 이후에 보여준 그의 행동은 그가 ‘합리주의자’라는 많은 연구자들의 평에 강한 설득력을 부여한다. 즉 헤르젠을 합리주의자의 범주로 굳이 분류하려는 샤피로의 평이나,⁹¹⁾ ‘사회의 이행’이라는 이상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연속성과 조화시키고자 했다⁹²⁾는 발리츠끼의 평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폴란드 측의 대표들과 협의할 때 그가 처음 제시했던 협약문의 내용처럼 헤르젠의 ‘슬라브 연방’이라는 개념은 자치적이고 개별적 주권을 인정하는 개념이었고, 이러한 개념은 흔히 보이는 민족주의자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다. 헤르젠 자신이 이미 50년대에도 ‘자유의 원칙들 위에 기초한 연합이라는 이념은 오도되거나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의해 과거에 그것이 해설되어 왔던 것처럼 제국주의적인 범슬라브주의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⁹³⁾고 자신이 그리는 ‘슬라브 연방’의 전제 조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폴란드 봉기 이후에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하여 헤르젠이 깊고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 병적인 애국심을 반대했다⁹⁴⁾는 벤추리의 평 역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헤르젠은 체계적이거나 완벽한 철학자는 아니다. 게다가 혁명가로서의 그의 강한 주의주의적인 측면이 그로 하여금 ‘실천 이성’을 앞세우는 행동 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 속에 담긴 부분적인 모순들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었거나 어쩌면 도덕 혹은 사회 정의라는 관념에 집착하여 그러한 모순들을 스스로 가볍게 넘겨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는 별도로 ‘병적인 애국심에 반대했던 러시아 인민주의의 아버지’라는 그의 역사적 좌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자기 모순을 가진 헤르젠의 좌표에 대해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는 제까브리스트들과 잉여 인간들 즉 지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고리를 이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60년대의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을 대표하고 있고, 이론가로서의 헤르젠은 40년대의 서구주의자들과 70년대 이후에 등

91) Schapiro, op. cit., p. 74, pp. 99-105.

92) A. Walicki, *Russian Thought*, pp. 179-80.

93) A. Herzen, "An Open Letter to Michelet," p. 177.

94) F. Venturi, op. cit., p. 127.

장하는 인민주의 이념가들의 사이에 서 있다⁹⁵⁾고 말리츠끼는 평한다. 1854년 초에 린톤(W. Linton)에게 보냈던 헤르젠의 “민족의 하나 됨을 지키는 가운데, 농촌 공동체는 유지되고 인간의 자유는 회복되며 전국에 있는 그리고 도시들에 있는 촌락들의 자치는 확대될 것입니다. 그 속에 러시아의 미래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응집되어 있는데 그 문제 자체는 분주하고 역동적인 유럽인들의 정신을 제거한다⁹⁶⁾는 사회적인 이윤배반입니다.”라는 편지를 엥겔스가 인용하면서, 곧 이어 “체르니셴스끼도 역시 기존의 이익사회의 형태로부터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현연사회로 다른 한편에서는 그 속에 세습 대립을 가진 사유력의 자본주의적인 이익사회로 승화된 미래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러시아의 농촌 공동체를 보고 있었다.”⁹⁶⁾라고 인민주의를 ‘러시아의 길’과 관계하여 이야기했었다. 바로 엥겔스의 이러한 분석 속에는 말리츠끼의 평가 제한된 공통점--‘과도기적 인물로서의 헤르젠’--이 존재한다.

그러나 헤르젠의 ‘과도기성’과 연관하여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슬라브주의자들과 인민주의자들 양쪽 모두가 산업화 과정--특히 자국의--에 신망하여 반반하고 있는 인텔리겐찌야들이라는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산업화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더욱 낙후된 “후진” 세계의 ‘철학자 왕’들은 모두가 행동에서는 서구주의자이지만 말은 나로드니끼처럼 하고 있나⁹⁷⁾는 겔너(E. Gellner)의 지적일 것이다. 물론 겔너 자신은 이러한 인텔리겐찌야의 유형을 20세기 이후 제3세계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으로 간주하고, 19세기와 20세기 이후 세계의 인텔리겐찌야들은 ‘서구주의적’ 경향과 ‘나로드니끼적’ 경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고 보았다.⁹⁸⁾ 하지만 제3세계의 인텔리겐찌야들이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건 혹은 자기 기반적인 위선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었건 간에 겔너

95) A. Waicki, *Russian Thought*, p. 180.

96) F. Engels, “러시아의 사회 관계에 대한 후기(Nachwort zu ‘Soziales aus Rußland’), 1894, M. E. W., 22, pp. 421-2. 다만 엥겔스는 트카쵸프(P. Tkatschow; P. N. Tkachev)를 헤르젠의 추종자(Nachtreten)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길’에 대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특히 트카쵸프를 바쿠닌의 추종자로 판단했던 것은 처음에는 그들이 인민주의의 트카쵸프시 전략을 범슬라브주의적인 색채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7) E. Gellner, 앞의 책, p. 156.

98) 위의 책, pp. 154-7, A. Smith, 앞의 책, pp. 167-9.

는 그들 인텔리겐찌야들 양쪽 모두 실재하지 않는 '이상화된 서구'나 '신격화된 민중'을 찾고자 하는 허구적인 문제를 추구하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 있는 사회의 인텔리겐찌야라는 겔너식의 분석과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던 스미스(A. D. Smith)식의 분석은, 러시아의 인텔리겐찌야를 합리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로 구분하여 그것들의 전개를 분석했던 샤피로의 그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비록 샤피로가 합리주의자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가 '허구적인 것으로 빠져가는'--지적 자기 파멸의 징후를 드러내는--인텔리겐찌야를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상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 그 넘어 인텔리겐찌야의 특히 헤르젠의 경우에서 '지적 자기 파멸의 징후'라는 논의는 일단 유보시켜 두기로 하자. 사실 헤르젠이 무의식적으로 러시아 민족주의의 성장을 자극했을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19세기 러시아의 상황과 서구주의자로부터 인민주의자로의 과도기적인 변화가 헤르젠의 미묘하고도 모순된 좌표를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Abstract

A. Herzen and Russian Nationalism

Jeon Ji-Yong

A. I. Herzen is an intelligentsia of a noble family. He had begun his intellectual activity on the westernism. After later forty, though preserving his earlier westernism he began to swing into the populism. Presumably, the circumstances which affected his transformation of thought are the modernization of Russia, the emancipation of serf, the failure in adapting for the culture of West, and the shock from experience in 1848, and etc.. In 60's, toward the time of his transformation to populism, he was attacked by the young radical men for 'superfluous men' whom they regarded as one of the gentry liberals of 40's.

He was surely a westernizer. But it is able to see something in P. V. Annenkov's words that Herzen had begun to comprehend slavophilism through his early controversing with slavophilists in Moscow. He stuck to his aristocratic tasters during his exilic life in the West, and exposed his feel a repulsion toward secular civil culture of bourgeoisie. Therefore, although he envied the western culture preserving the aroma as like a 'рейнвейна(Rhenish wine)' he had a gloomy and pessimistic view for the future of the West. In the chaos of this thought, for the hope of future society, it came up to him that Russian peasant were not dyed in the western secular culture. For him, therefore communal life of peasants is the hope of future society and the spring of the new socialist culture. In the his ideal transformation, some scholars trace out a seed of the intense russian nationalism, though Herzen plaied up the critical pose to the nationalism.

Herzen had regarded the nationalism as harmfulness in the early controversy with slavophilists, and he had gave expression to his stubborn rejection toward russian nationalism facing with the Polish question in early 60's. And yet, he regarded the peasant commune of Russia as the 'samobytnost', contrasting it with the western society, and would search out the hope of the future society in the russian peasants and the peasant commune. Then, this position is the original nationalistic feeling of the third world that E. Gellner made an analysis.